

EDRC 해외대학 석사과정 생활기

파견국가	미국
파견기관	Texas A&M University
파견기간	2016.09 ~ 2017.06
소속/직위	Texas A&M Energy Institute / 석사과정
성명	곽연수

내 용

1. EDRC 해외대학 석사과정 프로그램에 지원한 계기는 무엇인가요?

크게 세 가지 이유로 지원했습니다. 저는 화학공학과 학부 출신으로, 화학공정의 제어 및 설계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Texas A&M은 특히 공정 분야에서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히는 좋은 학교입니다. 따라서 공정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장학 혜택입니다. 해외 석사 과정은 대개 자비로 진학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 경우 전액 장학 이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이유는 언어입니다. 1년 동안 영어로 쓰기와 말하기를 충분히 익히고 온다면 영어와 평생 함께 해야 하는 앞으로의 삶이 좀 더 편해지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2. 현재 석사과정 프로그램 과정 중 수행하고 있는 연구는 무엇인가요?

저는 두 명의 교수님 연구실에 동시 소속되어 합동 프로젝트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본 프로젝트는 이산화탄소 흡착도가 높은 아밀로이드계열 자기조립 펩타이드 섬유를 전산생물물리 기법으로 설계 및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해당 물질의 이산화탄소 흡착도 평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3. 석사과정 기간 중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는 무엇인가요?

미국은 편의시설의 밀도가 낮기 때문에, 오래 지내려면 차가 필수입니다. 본 프로그램의 체류 기간이 짧은 만큼 구비 과정이 복잡한 차 대신 저렴한 자전거를 구매했습니다. 칼리지 스테이션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도시여서 밤에도 안전한 편으로, 휴일에는 자전거를 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새벽에 HEB 마트로 장을 보러 다니던 게 기억에 남습니다. 너무 열심히 타고다닌 나머지 핸들이 고장나고 펑크가 나서 최근에는 그냥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4. 현재까지 가장 기억에 남거나 의미 있었던 일은 무엇인가요?

공정 최적화 분야의 권위자이신 Efstratios Pistikopoulos 교수님의 Energy System Engineering I, II 수업에서 거둔 소기의 성과가 기억에 남습니다. 내주신 프로젝트들이 쉽지 않았기에 밤을 새가며 고생했지만, 1등을 하는 쾌거를 이루고 교수님께 직접 격려를 받았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흡착제 테스트를 하는 데 2개월 넘게 머리를 싸매며 고전하다가 처음으로 측정에 성공했을 때의 성취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2년의 석사 과정을 1년만에 압축해서 하는 만큼 밤늦게까지 뭔가를 해야 하는 날이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 현재까지 수행한 인턴십/석사과정 프로그램이 어떻게 도움이 되고 적용이 가능한가요?

우선, 교수님들로부터 훌륭한 지도를 받고 있습니다. 교수님들께서 전반적으로 대화에 열려 있으시고, 원인과 원리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하기를 즐기십니다.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도 많지만, 학문을 대하는

태도 등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예전보다 영어 작문이 편해졌습니다. 코스웍 과정에서 공학과목뿐만 아니라 법, 정책 등을 고루 다루기에 글을 쓸 일이 많습니다. 많은 텍스트를 읽고, 상당한 분량의 영문을 낚기에 맞추어 쓰다보니 실력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영어로 대화하는 능력은 교환학생 시절보다 퇴보한 듯 합니다. 영어를 많이 쓰지 않아도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외국인들과 많은 대화를 하겠다는 본인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장차 미국 진출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본 프로그램은 최적의 선택입니다. 혼자 오게 되면, 주변 한인들의 도움을 받더라도 필시 고초를 겪게 됩니다. 본 프로그램의 경우 같이 파견되는 사람들과 동고동락 하면서 서로 도우며 힘든 걸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정착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받는 경제적 서포트는 큰 힘이 됩니다. 미국은 박사과정 진학이나 취업에 있어 추천서가 중요한데, 이 때 본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 영향력이 큰 현지의 대가에게 지도를 받고 추천서를 부탁드릴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입니다.

6. 남은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저는 앞으로의 진로를 열어두고 있습니다. 미국 박사과정에 지원한 상태이지만, 현재 미필이기 때문에 국내 박사 진학이나 전문연구원 지원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쪽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임하고자 합니다.

